

패션실무영어 교과 내용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분석
- 요구 분석, 직무 환경 분석, 직무 및 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Analyses for the Curriculum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Fashion Business English Course**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Need, Job Setting, Job and Task -

이 예 영

Lee, Yhe-Young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In the modern globalized economy, textiles and apparel products are developed, produced and distributed in a global economic setting. For countries such as Korea with a non-English native language, it is important to prepare students with the ability to interact competently in English in the fashion business field.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offer a fashion business English course in universities. An ADDIE model, which is a basis to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consists of five steps: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In this study, analyses was conducte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curriculum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fashion business English course. A survey was distributed to 61 professionals who have worked in the fashion industry for 4 month to 16 years. Most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it was necessary to offer business English course for students in apparel-related fields.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English skills were needed when working as a merchandiser or buyer at a company involved in foreign trade, collecting information, having meetings with foreign buyers or consultants, and taking business trips. Most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learning professional vocabularies, from basic words such as warp, weft, lengthwise grain and hem to specialized names of seams, pockets, fasteners, stitches, details, etc., that are essential in the fashion field, were common, important or very important. Similar results were shown about writing e-mails, letters, faxes, and resumes, reading articles on fashion trends, mass customization, ready-to-wear, trade, and speaking general business English.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reading articles or books on market trends, social issues, trade documents, fashion history would be helpful. It was also recommended to practice giving presentations and job interviewing in English, and to learn professional vocabularies related to financial affairs and trade. Based on these analyses results, specific learning objects and instructional material can be designed and developed.

Key Words : fashion, business English, curriculum, analysis

I. 서론

오늘날 의류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과정은 세계적인 경제 시장을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다.1) 인건비 절감을 주목적으로 해외 아웃소싱(outsourcing)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보다 넓은 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혼한 일이다.2) 보그레머천다이징, 톰보이, FNC 코오롱, 한섬, 오브제, 제일모직, 지에스지엠, 아가방, 성주디앤디 등을 포함한 국내의 크고 작은 의류업체들도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3) 서울시는 서울을 세계 5대 패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2006년 9월 동대문 상권 내에 서울패션센터를 개관하여 패션쇼 및 작품 전시의 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영세한 디자이너나 상인들에게 디자인 및 패턴 관련 상담과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4) 또한, 서울 패션위크의 국제화 확대, 해외 패션 행사 참가 및 해외 현지 마케팅 지원, 최첨단 봉제 기술 센터 건립 (2009년 개관 예정),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해외 연구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5)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섬유부문 과세 철폐,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완화에 따른 대미 수출 환경의 개선은 침체된 국내 의류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의류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대학 및 패션 관련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패션 관련 실무 영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어는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어로 자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6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영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세계 인구의 비중은 8%인데 반해, 세계 100대 대학의 75%가 영어권에 속해 있다. 또한, 세계 인터넷 정보의 70%가 영어로 되어 있고, 각종 유명 학술지의 대다수가 영어권에서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영어구사 실력은 투자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6) 한국인의 영어 관련 사교육비는 연간 14억원 이상으로 한국의 2.6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 반면, 한국은 아시아 12개국 중 외국인이 영어 소통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 1) Dickerson, K. (1999). Textiles and apparel in the global economy.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2) 이선재 (역) (2000). 패션 비즈니스. Leslie Davis Burns와 Nancy O. Bryant의 The Business of Fashion. 서울: 학문사, pp. 357-359.
- 3) 박종진 (2007, 4. 24). 의류업계의 21세기 생존전략: '패션코리아' 세계로 뚫다. 주간한국, 2169, 20-22.
- 4) 황지연 (2006, 6. 9). 동아시아 패션허브 '동대문 패션축제'. 서울: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진흥원 패션사업팀. 자료검색일 2007. 5. 31. [http://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 5) 이동열 (2007, 2. 20.).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패션 도시로 조성한다. 서울: 서울특별시 산업국 산업지원과. 자료검색일 2007. 5. 31. [http://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 6) 전효찬, 최호상 (2006). 영어의 경제학. CEO Information, 578.
- 7) 2006, 대한민국 영어 보고서 (2006). 서울: MBC Production. 자료검색일 2008. 8. 14. <http://www.imbc.com/broad/>

뵈혔으며,⁸⁾ 서울시민의 약 74%가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힘들거나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⁹⁾

세계화와 함께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영어 실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에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과 외국 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영어 강의를 이미 개설하였고, 보다 많은 영어 강의의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10월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25개 전국 대학 중 92개교가 외국어 강의를 최소한 한 강좌라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강의의 대부분은 영어로 진행되었다.¹⁰⁾ 고려대학교는 몇몇 학과를 제외한 모든 신입교수의 영어 강의를 필수화하여, 2006년 2학기 안암캠퍼스의 영어 강의는 전체 강의의 34.8%를 차지하였다.¹¹⁾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07년 신입생부터 모든 강의를 영어로 수강하도록 하였고, 포항공대는 2007년에 학부 25%, 대학원 35%에 이르는 영어 강의를 2010년까지 100% 영어로 전환할 방침이다.¹²⁾

이와 같은 영어 강의의 확대 추세는, 영어강의 가능한 교수와 그렇지 못한 교수 사이의 위화감 조성, 교수와 학생 사이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및 강의의 효율성 등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¹³⁾ 이러한 최근 움직임에 발맞추어, 배성혜¹⁴⁾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전공 영어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강생들은 영어강의에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배성혜¹⁵⁾는 보다 질 높은 영어 강의를 위해 교수자 교육과 함께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 보충수업, 조교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류 관련 학과에서의 영어 강의 개설 또한 증가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미 고려대학교에서는 일부 의류학 관련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배재대학교, 유한대학 등에서는 ‘패션실무영어’란 강좌가 개설되었다. 또한, 서울시내

tv/culture/mbspecial/vod/?kind=image&progCode=1000833100175100000&pageNum=1&pageSize=5&cornerFlag=0&contentTypeID=0

- 8)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가 조사한 결과를 전효찬, 최호상 (2006). 영어의 경제학. CEO Information, 578에서 재인용.
- 9) 서울특별시 (2004. 1). “영어회화능력 향상 필요하다” 87.1%. 월간서울. 자료검색일 2008. 8. 14. <http://seoullove.seoul.go.kr/200401/22.html>
- 10) 박성현 (2007, 2.14). 대학 영어강의 몸살 앓는다. 국제경쟁력이 목표라지만 교육의 질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뉴스위크 한국판, 17(7), 14-20.
- 11) 박성현 (2006, 11.29). 국내 대학들 영어 강의 역풍 맞았다. 뉴스위크 한국판, 16(47), 38-41.
- 12) 박성현 (2007, 2.14). 앞의 책.
- 13) 박성현 (2006, 11.29). 앞의 책.
- 14) 배성혜 (2007). 대학의 전공 영어강의 수강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수업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위의 책.

3개 4년제 대학 의류 관련 전공생 55명 및 의류 관련 취업 희망생 16명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공생 45명과 비전공생 8명, 즉 총 71명 중 53명(약 75%)이 패션 관련 실무 영어 강좌 개설의 필요성과 개설 시 수강 의향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 의류산업의 국제화 확대 방침과 대학의 영어 강의 확대 추세에 따라, 의류 관련 학과 전공생이 실무에서 필요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개설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또한, 최근 대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영어 실력의 차이는 존재하므로,¹⁶⁾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개설은 영어 전용 의류학 관련 강좌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체계적인 설계 및 교과 내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자는 패션 관련 실무 영어 교과 내용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 ID) 및 교수체제개발(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ISD)의 개념과 대표적인 교수체제개발 모형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교수설계는 수업설계라 불리기도 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특정 학습 내용을 특정 학습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수방법의 결정 과정을 의미한다.¹⁷⁾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교수설계는 교수체제개발 즉, “인간의 교육과 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체제적인 과정을 통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의미한다.¹⁸⁾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수체제개발은 좁은 의미의 교수설계 또는 수업설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체제개발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 기업 교육, 군대 교육 등에서도 중요시되어 왔다. 특히,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은 조직의 경영활동을 통합하는 추세로 발전하여, 그 과정이 기업의 생산설계 과정과 유사해졌다. 즉, 생산설계 과정인 시장분석, 기획, 공작, 개발, 검사, 대량 생산 및 설치의 과정을 바탕으로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로 이루어진 교수체제개발 모형이 탄생하였다. 교수체제개발 모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이 모형은 각 단계의 영문 앞 자를 따서 일반적으로 ADDIE 모형이라 부른다(<그림 1>).¹⁹⁾ 또한, 흔히 사용되는 교수체제개발 모형으

16) 위의 책.

17) Reigeluth, C. (1983). *Instructional design theories and models: An overview of their current status*. Hillsdale, NJ: Erlbaum.

18)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199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교육과학사, pp. 208.

19) 위의 책, pp. 207-211; 박숙희, 엄명숙, 이경희 (199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pp. 148-154; 변영계, 김영환, 손미 (2000). *교육방법 및 교육 공학 (개정판)*. 서울: 학지사, pp. 36-37.

로는 Dick과 Carey의 체제 접근 모형(Systems Approach Model)²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대표적인 두 교수체제개발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ADDIE 모형

ADDIE 모형의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분석의 단계에는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그리고 직무 및 과제 분석이 포함된다. 요구분석은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위한 학습 요구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며, 학습자 분석은 학습자의 특성인 배경, 직무경험, 적성, 동기, 학습양식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환경 분석은 학습자의 학습장 환경과 학습한 것을 실제 활용할 직무 환경의 분석을 포함하고, 직무 및 과제 분석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의 추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직무 및 과제 분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나 전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문서를 검토하거나, 현업 종사자를 관찰 또는 인터뷰하여 수행한다.²¹⁾

두 번째, 설계의 단계에서는 학습 목적과 목표의 설정, 평가도구의 개발, 계열화, 교수전략과 매체의 선정이 이루어진다. 학습 목적과 목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하지만, 실제 수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학습과 실수,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 평가 도구에는 지필검사, 역할연기 및 모의실험, 직무수행 관찰 및 실기 검사 등이 포함된다. 계열화는 다양한 학습 주제의 배열 방법을 의미하는데, 주제별 계열화와 나선형 계열화가 있다. 주제별 계열화는 다양한 학습 주제를 순서를 정해 다루는 것이고, 나선형 계열화는 학습 주제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심화시키는 방법이다. 교수전략과 매체는 학습 집단의 규모, 환경, 교과 영역, 학습자의 장점과 선호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²²⁾

세 번째, 개발은 앞에서 이루어진 분석과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교수 자료를 제작하는 단계이다. 개발된 자료는 형성평가를 통해 점검, 수정, 보완될 수 있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전에 설계 및 개발 팀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1:1 평가, 소집단 평가, 현장검증 등을 포함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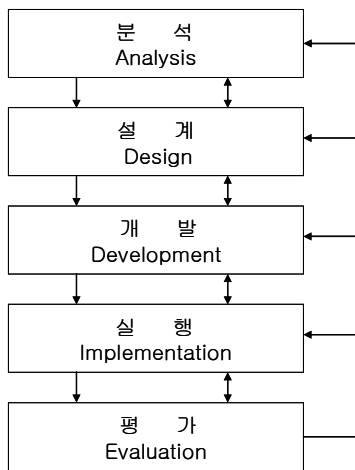
네 번째, 실행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교육 환경에 설치 및 사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강사의 훈련이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후원자 및 여론선도층의 지원을 유도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유지 및 변화 관리도 실행 단계에 포함된다.²⁴⁾

20) Dick, W., Carey, J. O., & Carey, J. O. (2005).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 (6th ed.). Boston: Pearson.

2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앞의 책, pp. 217-226.

22) 위의 책, pp. 226-236; 박숙희, 엄명숙, 이경희. 앞의 책, pp. 150-151.

23)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앞의 책, pp. 236-238; Dick, W., Carey, L., & Carey, J. O. op. cit., pp. 282-292.



<그림 1> ADDIE 모형

최종적인 평가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총괄평가를 주로 의미한다. 총괄평가는 앞에서 언급했던 형성 평가와는 달리,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현장 검증을 포함한다. 현장검증에서는 교육의 성과를 학습자의 반응,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 향상 정도, 학습내용의 현업 활용 정도, 학습 참여로 인한 최종적인 조직 또는 경영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⁵⁾

2. Dick과 Carey의 체제 접근 모형

Dick과 Carey의 체제 접근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모형은 ADDIE 모형과 많은 유사성을 띠는데, 요구사정, 교수분석, 학습자 및 환경 분석은 ADDIE

모형의 분석 단계에, 수행목표 진술, 평가도구 설계, 교수전략 수립은 설계 단계에, 교수자료 선택 및 개발, 형성평가, 프로그램 수정은 개발 단계에, 총괄평가는 평가 단계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Dick과 Carey의 모형과 ADDIE 모형의 큰 차이는 전자에 실행단계가 빠져있다는 점인데, 이는 Dick과 Carey의 모형이 교수자가 아닌 교수설계자의 입장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²⁶⁾

이상에서 살펴 본 ADDIE 모형과 Dick과 Carey의 체제 접근 모형 외에도, Renzulli, Leppien, Hays의 다중 메뉴 모형(multiple menu model)²⁷⁾ 등 다양한 교수체제개발 모형이 있다. 이러한 교수체제개발 모형은 새로운 수업의 교수 설계를 위한 연구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나연²⁸⁾은 ADDIE 모형을 적용해 대학생들을 위한 소비자 신용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하정임²⁹⁾은 Dick과 Carey의 모형을 활용해 중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구현을 위한 웹기반 수업의 교수 설계 모형을 연구하였다.

24)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앞의 책, pp. 239-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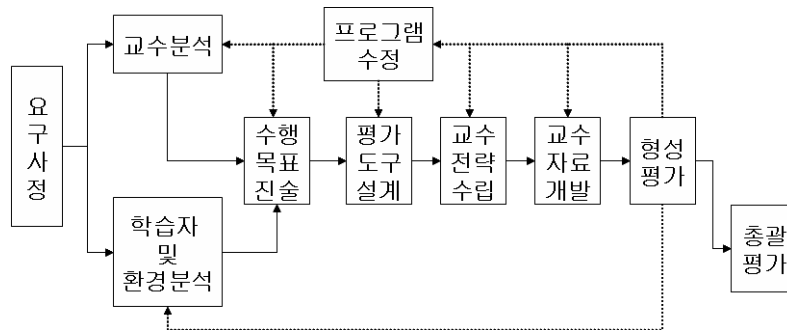
25) 위의 책, pp. 240-244.

26) 위의 책, pp. 211-213; 박숙희, 엄명숙, 이경희. 앞의 책. pp. 154-155.

27) Renzulli, J. S. (2004). The Multiple Menu Model for developing differentiated curriculum.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14(1), 75-85.

28) 김나연 (2006). 체제적 교수설계를 적용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연구: 대학생 소비자 신용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9) 하정임 (2006). 도형학습을 위한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구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그림 2> Dick과 Carey의 체계 접근 모형³⁰⁾

III.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자는 교수체제설계 모형 중 기본이 되는 ADDIE 모형을 바탕으로 패션실무영어 교과 내용 구성을 위한 초기 작업인 분석(analysis)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은 ADDIE 모형의 분석 단계 중 요구 분석, 환경 분석 중 직무 환경 분석, 그리고 직무 및 과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학습자 분석과 환경 분석 중 학습 환경 분석은 패션실무영어 강좌를 개설할 각 학교의 학습 환경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ADDIE 모형에서의 후속 단계인 설계와 개발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실무영어 강좌 개설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패션 실무에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 셋째, 패션실무영어 강좌를 개설할 경우, 원활한 패션 실무 처리를 위해 패션실무영어 강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즉,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본 연구자는 ADDIE 모형을 이용한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교수체제개발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 5월에서 2007년 5월까지 패션 관련 업체 종사 경험자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2006년 5월 패션 실무 5년에서 11년 경력자 6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올바른 이해를 확인하였고, 이후 2007년 4월에서 5월 55명의 패션 실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설문 응답자는 만 20세에서 40세로, 4개월에서 16년의 패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표 1>). 응답자들은 의류 업체에서 대부분 의류 및 소재 디자이너, 머천다이저, 바이어 등으로 근무하였다.

설문지는 패션 실무에서 영어 실력의 중요도, 대학에서 패션실무영어 관련 강좌의 개설 필

30) Dick, W., Carey, L., & Carey, J. O. op. cit.

요성, 패션 실무에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 그리고 세부적인 교과 내용 구성 관련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패션 실무에서 영어 실력의 중요도와 대학에서 패션실무영어 관련 강좌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문항은 ADDIE 모형의 분석 단계 중 요구 분석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패션 실무에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과 세부적인 교과 내용 구성 관련 질문들은 환경 분석 중 직무 환경 분석과 직무 및 과제 분석을 위한 것이었다. 세부적인 교과 내용 구성에 관한 질문은 의복 구성 및 디자인 관련 용어, 영문 이메일(e-mail), 편지, 팩스(fax), 이력서 쓰기, 패션 관련 기사 독해, 비즈니스 영어 회화 등의 학습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 패션 실무관련 영어 강좌에서 다루면 좋을 학습 내용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표 1> 설문 응답자 패션 관련 실무 경력

경 력	N(%)	경 력	N(%)	경 력	N(%)
0~1년 미만	6(9.8)	5~6년 미만	5(8.2)	10~11년 미만	2(3.3)
1~2년 미만	8(13.1)	6~7년 미만	3(4.9)	11~12년 미만	1(1.6)
2~3년 미만	5(8.2)	7~8년 미만	9(14.8)	15~16년 미만	1(1.6)
3~4년 미만	3(4.9)	8~9년 미만	5(8.2)	16~17년 미만	2(3.3)
4~5년 미만	7(11.5)	9~10년 미만	4(6.6)	계	61(100)

IV. 결 과

1.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을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패션 실무에서 영어의 중요도와 패션 관련 실무 영어 강좌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실무에서 영어의 중요도를

<표 2> 설문 조사 결과

(단위: N(%))

응답내용	패션 실무에서 영어의 중요성	전문 용어 학습의 중요성	쓰기 학습의 중요성	일반 비즈니스 영어 회화의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0(0)	0(0)	0(0)
중요하지 않다	4(6.6)	4(6.6)	3(4.9)	2(3.3)
보통이다	18(29.5)	18(29.5)	12(19.7)	16(26.2)
중요하다	27(44.3)	36(59.0)	28(45.9)	33(54.1)
아주 중요하다	12(19.7)	3(4.9)	18(29.5)	10(16.4)
계	61(100)	61(100)	61(100)	61(100)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 61명 중 4명(6.6%)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반면, 18명(29.5%)이 ‘보통이다,’ 27명(44.3%)이 ‘중요하다,’ 12명(19.7%)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표 2>). 따라서 실무에서 영어가 보통이상의 중요도를 갖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대다수였다.

취업을 대비해 대학에서 패션 실무 관련 영어 강좌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55명(90.2%)이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6명(9.8%)은 이와 같은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패션 관련 실무 영어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취업 후 패션 관련 실무 진행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 후에 실무와 관련된 영어를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2명과 앞서 패션 실무와 관련해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4명이었다. 후자와 같이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3명은 전문화된 실무 영어 강좌의 수강 보다는 기본적인 영어회화 능력이면 패션 관련 업무 담당에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패션 실무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무 영어 강좌의 개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직무 환경 분석과 직무 및 과제 분석

직무 환경 분석과 직무 및 과제 분석을 위해, 패션 실무에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과 세부적인 교과 내용 구성과 관련된 문항을 구성하였다. 패션 관련 실무에서 언제 영어가 필요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패션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트렌드 분석, 외국 브랜드 관련 자료 및 서적이 영어로 된 경우 영문 독해가 필요하였다. 또한,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외 출장 시에 이메일, 전화, 상담 및 회의를 통해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 이와 더불어 영문 보고서 및 발표, 영문 카피 제작 등 서류 관련 업무에 영어를 써야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패션 관련 실무 영어 강좌의 구체적인 교과 내용 구성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복 구성 및 디자인 관련 기본 용어인 씨실, 날실, 식서, 밀단, 솔기의 종류, 주머니의 종류, 바느질의 종류, 여밈의 종류, 각종 디테일, 의복 아이템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 등의 학습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표 2>와 같다. 응답자 4명(6.6%)을 제외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의복 구성 및 디자인 관련 기본 용어 학습의 중요성을 보통이상이라 대답하였다.

패션 실무 관련 영어 강좌 교과 내용 구성 시 영문 이메일, 편지, 팩스, 이력서 등 쓰기 학습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3명(4.9%)을 제외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보통이상이라 응답하였다(<표 2>). 의복 구성 및 디자인 관련 용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하여 36명과 3명이 각각 ‘중요하다’와 ‘아주 중요하다’라고 답하여, 총 39명(63.9%)이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반면, 실무 관련 쓰기 학습 중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수인 46명(75.4%)이 ‘중요하다’ 또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패션실무영어 강좌에서 패션 트렌드, 기성복, 대량 맞춤(mass customization), 무역 등과 관련된 패션 잡지 기사 독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패션 실무 관련 쓰기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보다 더 많은 수인 51명(83.6%)이 이러한 패션 잡지 기사 독해 학습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표 3>).

<표 3> 패션 잡지 기사 독해의 필요성

응답 내용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계
N (%)	0 (0)	2 (3.3)	8 (13.1)	31 (50.8)	20 (32.8)	61 (100)

<표 4> 패션 잡지 기사 독해 주제

독해 주제	패션 트렌드	기성복	대량 맞춤	무역
N	45	9	16	25

구체적인 패션 잡지 기사 독해 내용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패션 트렌드, 기성복, 대량 맞춤, 무역 중 실무에 도움이 될 독해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패션 트렌드에 관한 기사 독해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무역, 대량 맞춤, 기성복 순이었다. 각각의 응답자는 한 개 이상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패션 트렌드, 기성복, 대량 맞춤, 무역과 관련된 기사 외에 독해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은 주제에 대해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소재, 색상, 유통, 소비, 브랜드 등에 관한 시장 동향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룬 독해의 필요성을 언급한 응답자가 16명(26.2%), 해외 수출입 관련 문서 독해를 언급한 응답자가 9명(14.8%), 패션사 관련 독해를 위한 응답자가 6명(9.8%) 있었다. 이 외에 해외 전통 의상 관련 자료, 각종 패션 관련 전공 서적(유통, 머천다이징, 복식사, 텍스타일 등), 제품 제작 단계에서 소재나 패턴의 미세한 차이나 개선을 원할 때 쓰는 표현들을 다룬 독해의 필요성을 언급한 응답자들이 있었다.

패션 실무에서 일반 비즈니스 영어 회화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2>에서와 같이 대다수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이 중 70.5%에 해당하는 43명이 일반 비즈니스 영어 회화가 패션 실무에서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패션 실무 관련 영어 강좌 개설 시 위에서 언급한 의복 구성 및 디자인 관련 패션 용어 소개, 패션 실무 관련 쓰기 연습, 각종 패션 관련 주제에 관한 독해(패션 트렌드, 시장

동향, 무역, 대량 맞춤 등), 비즈니스 영어 회화 연습 외에 다루면 좋을 내용으로는 무역 및 재무 관련 용어와 회화 학습, 영어 발표 연습, 생활 영어 회화, 영어 인터뷰 연습 등이 언급되었다. 이 중 수출입 관련 용어와 회화 학습에 관한 언급이 13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V. 결론 및 제언

결과에 의하면, 패션 실무와 관련해 영어 실력은 대체로 보통이상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 응답자의 63.9%인 39명이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패션 실무에서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4명(6.6%)의 응답자들 모두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개설이 불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 중 한 응답자는 구체적인 교과 내용 구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의복 구성 및 디자인 관련 용어 학습, 이메일, 편지, 팩스, 이력서 등 쓰기 연습, 패션 잡지 기사 독해 학습이 실무와 관련해 중요하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나머지 3명(4.9%)의 응답자들은 세부적인 교과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중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중 한 응답자는 패션 관련 기사 독해가 패션 실무에 도움이 되고 일반 비즈니스 영어 회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대다수인 응답자의 90.2%가 패션 실무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학에서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패션 실무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패션실무영어 강좌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대학의 교과 과정에 따라 패션 실무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과목들을 선수강한 학생들이 패션실무영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패션 실무에서 영어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패션 트렌드나 시장 동향과 관련된 영문 자료를 읽어야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화 또는 직접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영문 보고서 및 발표, 카페제작 등의 경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직무 및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패션 관련 실무 영어 강좌에서 패션 실무와 관련된 독해, 회화, 작문을 학습 내용으로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교과 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의복구성 및 디자인 관련 용어, 실무 관련 쓰기, 패션 잡지 기사 독해, 일반 비즈니스 회화의 학습 필요성이 보통이상이라 인지하였다. 우선, 의복 구성 및 디자인 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4명(6.6%)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 모두가 그 학습의 필요성을 보통이상이라 답하였고, 실무 관련 쓰기 학습과 패션 잡지 기사 독해에 대해서도 각각 3명(4.9%)과 2명(3.3%)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이 그 필요성을

보통이상이라 답하였다. 또한 패션 실무에서 일반 비즈니스 영어 회화에 대해서도 2명(3.3%)을 제외한 나머지 96.7%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의 중요도를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패션 실무 관련 영어 강좌에서 다루면 좋을 내용으로 응답자들은 무역 및 재무 용어와 회화, 영어 발표 연습, 생활 영어 회화, 영어 인터뷰 연습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ADDIE 모형의 두 번째 단계인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구체적인 교과 과정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우선 정해야 한다. 주된 학습 목표는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의복구성 및 디자인 관련 용어 학습, 패션 관련 문서 작성을 위한 쓰기 학습, 패션 관련 다양한 독해 연습, 패션 실무와 관련된 회화 학습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각 교수자는 창의적인 평가 도구의 개발, 계열화, 교수전략 및 매체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수자는 각 대학별 수강 대상자들의 영어 실력과 대학의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한 학습자 분석과 학습 환경 분석을 행하여 참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습자 분석과 학습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수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ADDIE 모형의 세 번째 단계인 교수 자료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자면, 우선, 의복 구성 및 디자인 관련 용어의 학습을 위하여 교수자가 패션 디자인, 패턴 제작, 봉제, 의류 소재, 패션 디테일, 착장과 관련된 영문 서적을 중심으로 주요 용어들을 추출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패션 실무 관련 문서 작성 학습을 위해서는 샘플제조지시서(specification sheet)는 물론 구체적인 패션 실무 처리 상황에 맞는 이메일, 편지, 팩스, 이력서 등의 쓰기 학습 내용을 다룰 수 있다. 독해 내용으로는 의복 스타일, 소재, 색상, 유통, 소비, 기성복 브랜드 관련 패션 트렌드 및 시장 동향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수출입 또는 무역 관련 기사 및 문서, 대량 맞춤, 패션사 관련 기사나 서적 등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독해 자료는 응답자들의 제언에 따라 각종 패션 잡지는 물론 인터넷 사이트, 의류학 관련 교과서를 중심으로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패션 실무에 있어서 일반 비즈니스 영어 회화가 갖는 중요도를 감안해 패션 실무와 관련된 비즈니스 영어 회화의 학습이 필요하다. 각종 패션 관련 회사의 여타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성격과 업무의 특성을 파악해 응답자들이 언급한 전화, 상담, 미팅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그에 맞는 회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패션 관련 영문 보고서 작성 및 발표, 패션 관련 업체 취업을 위한 영어 인터뷰 연습 등을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교수 자료는 형성 평가를 거쳐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설계 및 교육 내용 개발은 ‘패션 실무’의 원활한 수행을 궁극적인 학습 목표로 하므로, 일반 비즈니스 영어와는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에 따라, 일반 비즈니스 및 생활 영어 회

화, 무역 및 재무 관련 용어 학습은 물론 영어 독해 및 작문 연습을 패션실무영어 강좌 이외의 각종 영어 강좌의 수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패션실무영어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영어로 개설된 전공 강의 및 실습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패션 실무를 대비한 영어 학습의 확실한 심화가 이루어짐은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도의 배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국제화된 의류산업의 특성상 패션 실무에서 영어 능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의류산업의 국제화 확대 방안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력 배출을 위한 한국 대학들의 영어 강의 개설 증가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개설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교과 과정의 개설은 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의류학 관련 영어 전용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인 패션실무영어 강좌의 설계 및 교수 자료 개발에 기초가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나연 (2006). 체제적 교수설계를 적용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연구: 대학생 소비자 신용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성현 (2006, 11.29). 국내 대학들 영어 강의 역풍 맞았다. 뉴스위크 한국판, 16(47), 38-41.
- 박성현 (2007, 2.14). 대학 영어강의 몸살 앓는다: 국제경쟁력이 목표라지만 교육의 질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뉴스위크 한국판, 17(7), 14-20.
- 박숙희, 염명숙, 이경희 (199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박종진 (2007, 4. 24). 의류업계의 21세기 생존전략. '패션코리아' 세계로 뚫는다. 주간한국, 2169, 20-22.
- 배성혜 (2007). 대학의 전공 영어강의 수강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수업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계, 김영환, 손미 (2000). 교육방법 및 교육 공학 (개정판). 서울: 학지사
- 서울특별시 (2004. 1). "영어회화능력 향상 필요하다" 87.1%. 월간서울. 자료검색일 2008. 8. 14. <http://seoullove.seoul.go.kr/200401/22.html>
- 이동열 (2007, 2. 20).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패션 도시로 조성한다. 서울: 서울특별시 산업국 산업지원과. 자료검색일 2007. 5. 31. [http://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 이선재 (역) (2000). 패션 비즈니스. Leslie Davis Burns와 Nancy O. Bryant의 *The Business of Fashion*. 서울: 학문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199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교육과학사.
- 전효찬, 최호상 (2006). 영어의 경제학. *CEO Information*, 578.
- 하정임 (2006). 도형학습을 위한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구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지연 (2006, 6. 9). 동아시아 패션허브 ‘동대문 패션축제’. 서울: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진흥원 패션사업팀. 자료검색일 2007. 5. 31. [http://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 2006, 대한민국 영어 보고서 (2006). 서울: MBC Production. 자료검색일 2008. 8. 14. <http://www.imbc.com/broad/tv/culture/mbspecial/vod/?kind=image&progCode=1000833100175100000&pageNum=1&pageSize=5&cornerFlag=0&contentTypeID=0>
- Dick, W., Carey., J. O., & Carey, J. O. (2005).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 (6th ed.). Boston: Pearson.
- Dickerson, K. (1999). *Textiles and apparel in the global economy*.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Reigeluth, C. (1983). *Instructional design theories and models: An overview of their current status*. Hillsdale, NJ: Erlbaum.
- Renzulli, J. S. (2004). The Multiple Menu Model for developing differentiated curriculum.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14(1), 75-85.